

도시는 꿈터(夢場)의 무대다워야 한다

恒山 김유혁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자연을 가리켜 신의 창조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시는 인간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자랑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의 작품이 신의 창조물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이 들어오던 이야기다.

도시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도시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그리고 어떤 규모로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간에 많은 이들의 그리움과 부러움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향해서 옮겨가기를 꺼려하지 않는 경향이 도시의 발전 속도와 거의 정비례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의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희망을 키워가는 터전으로 여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도시가 지니는 역기능(逆機能)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 원인적 현상의 하나는 농촌으로부터 압출(押出)되는 인구집단의 이주현상이었다. 농촌으로부터 밀려오는 인구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흡인력(吸引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인구의 사회적 증가추세는 도리어 도시사회의 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그것이 주택난 문제요, 슬럼지구의 발생이요, 실업인구의 범람이요, 우범지대 등의 형성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어지는 시기에 즈음하여 거의 많은 도시들은 새로운 면모를 엿보이기 시작했다. 도시 자체가 지니는 잠재적인 발전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재개발의 불이 일어나고, 뉴타운 개념의 새로운 도시가 제 나름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자랑하는 위상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한편, 종래의 일극중심도시(一極中心都市)가 상대적 개념의 도시로 그 위상이 바뀌는 성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신도시 건설계획이 개발 지향적 전략개념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아울러 일정한 행정구역을 도시영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어감에 따라 종래의 농촌지역은 도시권으로 흡수되어지는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른바 종래의 군(郡)단위를 도시권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도시는 광역화되고 농민은 농촌인구의 구성원 개념으로부터 도시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처지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비율은 통계학적으로 급감하고 도시인구는 급증하는 현상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도시 성장추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귀띔해준다.

첫째는 수도(首都)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수(首)는 으뜸(머리)이라는 의미와 지배(두뇌)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그럼으로 수도는 규모면

에서 제1의 도시로 인식되어 왔으며 행정, 입법, 사법 등 국가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의 본부소재지라는 뜻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정부 주요기관의 지방분산 정책과 아울러 산업경제 및 항만기능도시의 확충 등 개발계획추진에 의한 거대 신도시의 등장은 과거 도시규모 순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서울(중앙)지향적인 사고구조의 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꿈과 희망을 지닐 수 있는 꿈터(夢場)는 수도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기대를 키워갈 수 있는 도시상(都市像)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행정복합도시 등의 눈부신 등장이다.

전국적으로 도시가 자리하는 지리적 연계반경의 근역화현상(近域化現象)은 도시의 동시다발적 형성추세의 일면이며 동시에 도시 사회적 여건의 큰 변화라고 여겨진다. 이는 다시 말하면 도시선망(都市羨望)의 심리적 욕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족시켜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자기고장의 이미지를 키워갈 수 있는 꿈의 현장이 사실로 펼쳐어져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민들 가슴속에 확실히 심어주는 새 풍토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신생도시의 경우일수록 아이덴티티를 잘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아이덴티티는 그 곳 주민들의 자존심이며 동시에 긍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의 도시개발정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라면 신도시일수록 최적조화의 미(最適調和美)를 살려갈 수 있어야 한다. 어메니티(amenity) 문제는 환경적 조화 면에서 어느 도시에서나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첨가하여 보다 높은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차별화된 조화미(調和美)는 독자성의 문화적인 콘텐츠(contents)를 어떻게 설정해야하는가에 달려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도시상은 지역의 국제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서울 올림픽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경우와 같이 전 인류의 관심사인 국제적 이벤트는 국가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도시)의 잠재적인 능력을 토대로 하여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나갈 것이다. 그럼으로 특히 충남의 경우는 도청 신도시건설을 비롯하여 행정복합도시 등의 건설계획이 국토의 중심권이라는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충남권의 도시는 모든 사람들의 꿈터(夢場)의 중앙무대다운 구실을 하는 기회의 터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